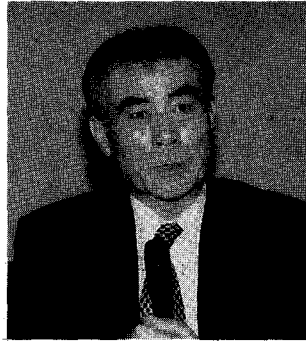


국산녹용의 한의약적 이용방안



이 상 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1. 서 론

사슴의 뿔이 한의학에서 응용되기 시작한 것은 신농본초경(本經)에 처음 수록되면서이다.

본경(本經)에는 상품(上品)에 백교(白膠), 중품(中品)에 녹(鹿), 하품(下品)에 미(麋) 등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백교는 지금의 녹각교(鹿角膠)로 상품 120종(種) 중 하나로 양명(養命)을 주로하고 독이 없어 많이 먹어도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으므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서 늙지 않고 오래토록 삶을 영위하는데 응용하였고, 녹(鹿)은 중품 120종중 하나로 녹용(鹿茸)을 말하며, 중품에 수록된 약재는 양성(養性)을 위해 주로 사용하고 질병을 조화시키고 허약한 증상을 보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미(麋)는 하품 125종중 하나로 질병을 치료하는데만 주로 응용하였다. 이와같이 사슴의 부산물인 녹용을 그 종류에 따라 약효와 응용범위를 문헌에 기록하였고, 병증(病證)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효능이 있어 한의학의 이론에 입각하여 변증하고 증상에 적합하게 배오하여 치료제로 응용하는 약재의 하나이다.

2. 사슴 부산물과 종류

(1) 백교(鹿角膠)

녹각교(鹿角膠)는 사슴의 노각(老角, 뿔이 다 자란다음 탈모가 되지 않은 상태)을 가지고 가공하여 교상(膠狀)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현재는 낙각(落角)을 가지고 만들었으나 옛 문헌에는 탈모되지 않은 노각(老角)을 가지고 가공하였다. 따라서 그 효능 또한 녹용보다 더 우수하여 양명(養命)을 하는 효능이 있어 불노장수를 위한 약재로 이용하였다.

(2) 녹용

녹용은 본경(本經) 중품(中品)에 수록하였으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백교(白膠)와 녹용

을 같이 다루었다. 녹용이라 함은 사슴의 몸이 작고 반점이 있으며 높은 산에 살고 있는 꽃사슴의 뿔을 말하는 것으로, 뿔이 생장하는 모양에 따라 일지(一枝), 이지(二枝), 삼지매(三枝梅)로 분류하며, 고전(古典)에는 녹용의 성상을 가자양(茄子樣)이나 안상(鞍狀)으로 기록하였다. 가자양(茄子樣)이란 가지모양(일지매)을 말하며, 안상(이지매)이란 뿔의 모양이 말의 안장과 같은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이 두 모양은 모두 어린상태의 뿔을 말한다. 그러므로 녹용의 어원은 사슴의 뿔이 막 솟아나오는 모양이 식물의 새싹 돌아나오는 모양과 같다하여 사슴록 자(字)에 싹용 자(字)를 합성하여 녹용(鹿茸)이라 명명하게 된 것이다.

(3) 미용(麋茸)

미(麋)는 사슴중에서 몸이 크고 서식처가 들판이나 호수가에서 살고 있는 사슴을 말한다고 하였다. 본경에는 하품에 수록하여 질병을 치료하는데 응용하는 것으로 특히 보음작용(補陰作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4) 녹각(鹿角)

녹각은 사슴의 뿔이 완전히 성장한 다음 탈모되기 전에 자른 것을 말하며 일명 노각(老角)이라 하여 녹용(幼角)에 대칭하여 명명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자연히 탈각하여 낙각된 부산물을 약재로 이용하였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사슴에서 생산되는 뿔은 녹각교(鹿角膠), 녹용(鹿茸), 녹각(鹿角)으로 나누웠고, 종류에 있어서는 단지 몸이 크고 작음에 따라 작은 것은 매화록(梅花鹿), 몸이 큰 것은 미록(麋鹿) 또는 마록(馬鹿)으로 기록하였다. 그 당시는 동물분류학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고, 다만 몸집의 크고 작음과 서식하는 장소가 높은 산과 들판에서 야생하는 것에 따라 차별화 하였다. 이러한 문헌적 근거에 입각하여 사슴의 뿔을 치료제로 응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매화록(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과,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의 숫사슴의 골질화(骨質化)되지 않고 털이 밀생(密生)한 유각(幼角)으로 전자(前者)를 화녹용(花鹿茸), 후자(後者)를 마녹용(馬鹿茸)이라 규정(規程)하였고(中華人民共和國藥典, 1995. p.283),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생약) 규격집에, 이 약은 매화록(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 혹은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 및 동속근연동물(사슴과, *Cervidae*)의 털이 밀생되고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뿔(幼角)으로, 그 기원을 중국약전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상용화한약집(常用和漢藥集)에 만주사슴(梅花鹿, *Cervus(Sika) nippon mantchuricus*) 또는 만주붉은사슴(馬鹿, *Cervus elaphus xanthopygus*) 등의 각화되지 않은 어린뿔(幼角)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두 종류로 한정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근연동물의 뿔도 녹용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재에는 세계의 각국에서 사육 또는 서식하고 있는 사슴의 뿔을 녹용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종류의 사슴이 수입되어 사육하고 있다.

3. 녹용류의 효능

(1) 녹용

매화록과 마록의 유각(幼角)을 녹용이라 하여, 그 효능과 주치(主治)를 장신장(壯腎腸),익정혈(益精血), 강근골(強筋骨), 조충임(調衝任), 탁창독(托瘡毒)하는 효능이 있어 양위활정(陽萎滑精), 궁냉불임(宮冷不孕), 이수, 신피(神疲), 외한(畏寒), 현운이명이농(眩暈耳鳴耳聾), 요척냉통(腰脊冷痛), 근골위연(筋骨痿軟), 붕루대하(崩漏帶下), 음저불렴(陰疽不斂) 등 증상에 응용한다.

(2) 녹각교

녹각을 물에 삶아 농축하여 고체(固體)로 만든 교질(膠質)로, 그 효능과 주치는 온보간신(溫補肝腎), 익정양혈(益精養血)시키는 효능이 있어, 양위활정(陽萎滑精), 요슬위랭(腰膝痿冷), 허

로이수, 붕루하혈(崩漏下血), 편혈뇨혈(便血尿血), 음저종통(陰疽腫痛) 등 증상을 치료하는데 응용한다.

(3) 녹각

마룩과 매화룩의 이미 골질화된 뿔이나, 혹은 뿔을 짜른 다음 다음해 봄에 탈락한 각기(角基)를 말하며, 그 주치와 효능을 다같이 온신양(溫腎陽), 강근골(強筋骨), 행혈소종(行血消腫)시키는 효능이 있어 양위유정(陽萎遺精), 요척냉통(腰脊冷痛), 음저창상(陰疽瘡瘍), 유옹초기(乳癰初起), 어혈종통(瘀血腫痛) 등 증상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녹용의 효능이 가장 좋으며, 그 다음은 녹각고, 녹각 등의 순으로 효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최근 녹용에 관한 연구결과

최근대에 와서 녹용의 수입은 매우 다양하여, 중국으로부터는 매화룩의 뿔인 이지매와 삼지매의 화용(花茸)과 마룩의 뿔인 마녹용(馬鹿茸)이 수입되고, 뉴질랜드로부터는 적록(赤鹿)의 뿔인 녹용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는 대룩(大鹿)의 뿔이, 알래스카와 러시아로부터는 순록(馴鹿)의 뿔이, 또한 중앙아시아로부터는 적록의 뿔이 수입되어 임상에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약계서는 뿔의 모양과 망상세포의 치밀도 및 색상으로 보아, 뿔이 굵고 크며 망상세포의 조직이 치밀하고 선홍색이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인식됨으로서 골질화된 노각(老角)을 수입하여 근거도 없는 관행으로 상, 중, 하대로 분류하여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더 나가 위풍으로 변조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녹용의 응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에 따르는 효능의 비교 실험을 1979년부터 1985년에 이르기까지 연구하였던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룩(大鹿, elk deer), 적록(red deer), 순록(rein deer), 매화룩(sika deer) 등 4종류의 녹용을 이용하여 조혈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던바, 제일 좋은 효과는 대룩(大鹿)의 녹용을 투여한 동물군이었고, 다음은 적록, 순록, 매화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경(本經)과 기타 본초문헌(本草文獻)에 사슴중에서 큰사슴은 들관이나 호수에서 서식하여 보음(補陰)에 효과가 있다는 기록과 일치하며, 조혈기능을 개선하고 빈혈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몸집이 큰 사슴의 뿔이 효과가 좋다는 사실과 같은 결과라 생각된다(참고문헌: 경희한의대 논문집, Vol. 2, 33-41, 1979).

(2) 사종녹용(四種鹿茸)이 내분비기능(內分泌機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에서는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함량의 증가에 있어서는 알래스카산 순록(馴鹿)의 녹용의 효과가 가장 좋았고, 다음은 매화룩의 녹용, 러시아산 적록의 녹용, 중국산 마룩의 녹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몇가지 호르몬 함량의 회복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산 매화룩의 녹용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러시아산 적록, 알래스카산 순록의 녹용, 중국산 마룩(馬鹿)의 뿔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옛 문헌에 매화룩은 높은 산에 서식하여 조양(助陽)을 하고저 하면 매화룩의 뿔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에 합당하며, 또한 다른 사슴의 뿔도 매화룩의 뿔과 같이 이지매(一枝梅) 또는 이지매(二枝梅), 삼지매(三枝梅)의 정도 컸을 때, 절각하여 응용하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참고문헌: 경희한의대 논문집, Vol. 8, 91-110, 1985).

5. 결 론

녹용은 한의학에서 신양부족(腎陽不足)과 혈부족(血不足)으로 발생하는 병증(病證)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재로, 과거에는 중국으로 부터 수입되어 응용하였고, 현재는 세계가 일일생활권으로 발전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사슴의 뿔이 수입되고 있을 뿐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에

서는 여러 종류의 사슴이 수입되어 사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양육협회의 1996년 통계에 의하면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가구수가 9,800가구로, 사육되고 있는 마리수만도 194,564두에 이르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녹용의 생산량에 있어서도 37,808kg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은 우리나라 녹용의 연간수급량의 31.2%에 불과하지만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소득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은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였고 때문에, 필자는 어떻게 생산하면 한의약계에서 국산 녹용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1) 양질의 녹용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질의 녹용이란 골질화 되지 않은 어린뿔을 절각하여 건조한 것으로, 사슴의 종류에 따라 절각 시기가 다르므로 양에 치중하지 말고 질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한의약계서도 수입품보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녹용을 이용하리라 생각한다.

(2) 사슴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지 말고 품질이 우수한 품종만을 선택하여 대량 사육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육되고 있는 매화록은 그 품종이 중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만주록이 아니라 여러 종류 (동남아에 서식하고 있는 매화록)가 교배되어 잡종화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잡종 매화록에서 생산되는 녹용은 상품의 가치 뿐 아니라 품질면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이룰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매화록중 교배잡종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좋은 종류의 만주록을 수입하여 생산하고, 기타 엘크 (대록) 나 적록중에서도 품종이 좋은 사슴을 선정하여 사육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이 필자의 평소 생각하였던 녹용의 품질향상의 생각임으로 생산농가 여러분들 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性생활이 건강에 좋은 10가지 이유

정기적인 섹스는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의 성의학자인 테레사 크렌쇼박사는 『섹스가 잠수에 유익하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남성 건강(Men's Health)」 11월호에 이와 관련한 해설을 실었다. 다음은 「남성 건강」에 실린 「섹스가 건강에 기여하는 10가지 사항」

- ▼ **활력을 느낀다** = 성행위는 「육체적 운동의 한 형태」다. 일주일에 세번씩 섹스를 할 경우 7천5백cal가 소모되며 1년간 합산하면 1백20km를 달린 셈이다.
- ▼ **심호흡에 도움** = 성행위는 세포의 산소량을 증가시키고 각 기관과 조직의 기능을 최대로 활성화시킨다.
- ▼ **호르몬 증가** = 육체적 운동은 어떤 것이든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킨다. 전문가들은 이 호르몬이 남성들의 뼈와 근육을 단단하게 한다고 믿고 있다.
- ▼ **콜레스테롤치 조정** = 섹스는 나쁜 콜레스테롤에 대한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유익하게 조절하는 한편 총 콜레스테롤치를 얼마간 낮추는 효과도 있다.
- ▼ **통증 해소** = 미국 성교육연맹회장 비벌리 휘플박사는 섹스가 관절통 두통 등의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
- ▼ **호르몬 보충** = 성애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연적으로 DHEA가 분비된다. 오르가슴과 사정 직전에는 DHEA 혈중농도가 보통 때보다 다섯배나 올라간다.
- ▼ **전립선 보호** =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관련 질환은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분비물에 의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칙적인 음경 운동은 이런 분비물을 없애준다. 그러나 갑자기 섹스주기를 바꾸면 전립선 질환이 생길 수 있다.
- ▼ **스트레스 해소** = 섹스 후의 만족감 혹은 나른함은 정신이나 순환기계에 유익하다.
- ▼ **부부간 일치** = 사랑이 깃들인 접촉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화학물질인 옥시토신 농도를 증가시킨다. 옥시토신은 배우자간의 성 접촉을 더욱 빈번하게 한다.
- ▼ **육체에 활력** = 섹스는 여성에게 특별히 유익한 점이 있다. 정기적인 섹스는 여성호르몬 농도를 높여 심장병을 막고 질 조직을 더욱 부드럽게 한다.